

4차 산업혁명 선도 '맞춤형' 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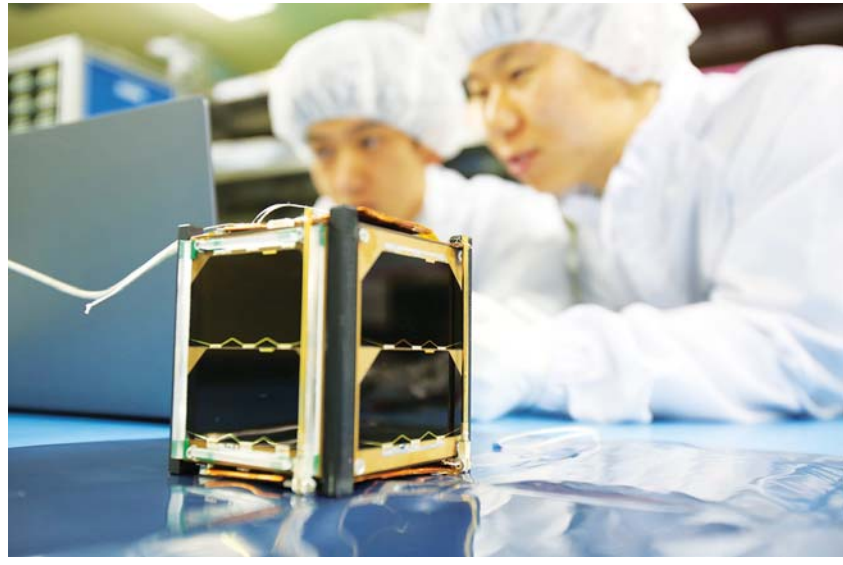
조선대, 학생 교육 혁신

<1> 함께형 리더양성

조선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한 변화를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간 경계 파괴와 융합으로 전통산업 분류의 의미가 상실되며 빈번한 직업 전환이 이뤄져 교육 플랫폼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 감성적 상호작용과 교감능력, 개방적 의사소통 등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대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이 큐브인공위성 'STEP CUBE LAB'에서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있다.

학생 중심 '6C 교육모델' 추진 특화 교양교육 융합플랫폼 구축 창의주도 등 프로젝트 교육 확대

◇ 6C교육 추진

조선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 감성적 상호작용과 교감능력, 개방적 의사소통 등을 함양시키기 위한 미래 교육모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의 교육모델은 교수 중심이었지만, 미래교육모델은 학생 중심 교육,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꾀하고 있다.

조선대는 6C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발전모형을 실행하고 있다. 소통(Communication), 융합(Convergence), 창의(Creativity), 특화(Characterizing), 도전(Challenge), 공헌(Contribution) 등 학생 중심

의 교육서비스 강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융복합 교육과정으로 가치창출역량을 갖춘 '함께형 리더'를 육성하고 있다.

단순하게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교육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현장 실무형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복합 기술 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젝트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큐브인공위성 'STEP CUBE LAB'의 사례를 통해 교육성과를 입증했다.

◇ 인성교육 강화

조선대는 미래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도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봉사, 교육, 문화체험, 연구 및 특별활동 등이다.

정규교과 영역에서 배양이 어려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비교과와 연계한다는 취지이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입학에서 졸업까지 이력과 경력, 학습관리 및 비교과 영역 전반에 걸쳐 활동한 내용을 기록하고 점수화한 인증시스템인 CU-SP(Chosun University Student Portfolio)를 도입했다. 이러

한 학생포트폴리오 시스템의 항목에 의해 적립된 점수를 '문화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마일리지는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학생 스스로 능동적인 자기계발과 비교과 활동 등에서 축적된 역량에 대해 일정한 마일리지 점수를 누적하여 해외 문화탐방 및 장학금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비교과 과정의 영역은 핵심소양 영역으로 ▲문화체험활동(예술체험, 공연 및 전시관람, 스포츠활동 등) ▲창의성 활동(자기역량강화를 위한 학생자율 탐구 프로젝트, 인성함양교육프로그램 'CO-Bildung' 프로젝트 등) ▲학습 증진활동(학습동아리 SOS, 토익단기 사관학교 등) ▲공로선행표창 등이 있다.

봉사영역에는 ▲다문화가정봉사 ▲학내봉사 ▲사회봉사 ▲문화예술봉사 ▲해외봉사 등이 있다. 이외에도 취업 영역, 독서영역, 국제화영역, 자기관리 영역 등에서 각각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강동완 조선대 총장은 "학생들은 기존의 정규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과 경험들을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며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 모델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r강 총장은 또 "조선대학교는 앞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화된 교양교육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단계별 전공주도·창의주도·글로벌주도 프로젝트형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미래 시대에 부합하는 가치 중심, 학생 중심의 교육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3D 프린팅 메이커 스페이스' 설치

전남대, 중소기업부 사업 선정...사업비 27억 투입

전남대는 중소기업부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사업'에 선정돼 국비 19억원을 지원받는다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는 3D 모델 파일과 다양한 재료들로 소비자가 원하는 사물을 즉석에서 만들어 내는 공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처음으로 창업 연계형 전문작업 공간인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 5곳과 교육·체험 중심의 생활 밀착형 창작공간인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 60곳을 선정했다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로 지정된 전남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제조 창업 플랫폼을 갖춘다

또 3D 프린터기, 레이저 커팅기 등 범용 디지털 제작장비와 CNC 머신, 사출기 등 초기 양산제품 제작을 위한 장비를 갖춘 등 제조창업 플랫폼 '마이크로팩토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전남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제

조창업 플랫폼인 '마이크로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해 메이커들의 시제품 제작 및 초기 양산형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역 제조창업 육성 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또 창업자의 재무적 부담을 줄여주고 고객을 통한 시장 검증이 가능한 크라우드 펀딩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광주 및 호남에 두드러질 방침이다

전남대는 지난 2010년부터 대학 자체적으로 창업지원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내 창업관련 5개 센터 및 사업단의 책임자와 인력을 통합·운영하고, 메이커스페이스 관련 장비 및 인력 공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전문성을 높여왔다

정병석 전남대 총장은 "이번 사업선정을 통해 전남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광주시, 전남도 등 자치단체들과 연계해 지역의 제조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석 전남대 총장은 "이번 사업선정을 통해 전남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광주시, 전남도 등 자치단체들과 연계해 지역의 제조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대학교 호심기념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해 '서(書)로 만남' 독서클럽 프로그램 운영했으며 최근 우수클럽 시상식을 가졌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

광주보건대평생교육원, 1기 교육생 모집

광주보건대학교(총장 정명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평생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 보조, 영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다.

지원 자격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에 있으면 된다.

평생교육원은 오는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제1기 교육생(평일야간반40명, 주말반40명)을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5월까지이며, 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보건대 평생교육원(062-958-75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환 기자

호남·동신대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2023년까지...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획득

호남대와 동신대가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을 획득했다.

호남대·동신대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시행한 '2018년도 상반기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오는 12월 11일부터 2023년 12월 10일까지 5년이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교육부의 지정을 받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해 간호학 프로그램의 교육 역량을 심사·인증하는 제도로, 비전과 운영체계, 교육과

정, 학생, 교수, 시설, 교육성과 등 6개 영역 32개 항목을 평가한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17년부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 한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동신대 간호학과는 2015년 12월 2주 기간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3년 인증을 받았다. 호남대 간호학과는 2006년에 신설된 간호사 국가고시의 높은 합격률뿐만 아니라 우수한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황애란 기자

광주대 독서클럽·다독상 시상식

광주대가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인문교육 강화와 독서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대는 최근 호심기념도서관은 '서(書)로 만남 독서클럽' 시상식을 가졌다. '서(書)로 만남 독서클럽'은 학생들의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학기별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1학기 프로그램은 지난 3월부터 11주 동안 10개 클럽에 50여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황애란 기자

호심기념도서관은 독서모임 성실도, 독후감 작성, 독서 토론 등을 평가해 '소망보다 대망' 팀(김인애 학생 등 5명)을 최우수 클럽으로 선정했다.

호심기념도서관은 '서(書)로 다독다독(多讀多讀):2018-1학기 전자책·오디오북 다독상' 시상식도 가졌다. 전자책 다독상은 최은 학생, 오디오북 다독상은 박동혁 학생이 받았다. /황애란 기자

지역 일자리창출의 디딤돌
유망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기간 2018. 1월 ~ 12월

추진방법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 추진

지원규모 관내 중소기업 40개사 내외

지원내용

-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 8개사
-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 9개사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리화 지원 : 10개사
-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 : 10개사

지원예산 271,000천원

문의 북구청 기업지원과(☎062-410-6577)

광주광역시북구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기간 2018 1월 ~ 12월

지원대상

- 광산구 소재 중소기업 중 청년 신규 고용기업
-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 신청 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12개사
- 중소기업 특허디자인팀, 브랜드디자인 개발, 특허기술사출력 지원 : 10개사

문의 광산구 사회경제과 062-960-8426

광산구

모두가 즐겁게 일하는 경제
행복한 동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와 함께합니다.

광주광역시서구